대한항공, 정비 인프라 대폭 확충
통합 항공사 '안전' 경쟁력 높인다

인천공항 신규 정비 격납고 건설
아시아나 승무원 통합훈련 실시
"안전체계 고도화… 고객신뢰 확보"

지난 5월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협력해 합동 비상탈출시범을 진행하는 모습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 이후 글로벌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는 만큼 고객 신뢰의 기반인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에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정비 격납고를 구축하는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정비 시설을 대규모로 신설·확충하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올해 3월 창립 기념사에서 "통합을 바라보는 고객들의 기대와 함께 불안감도 존재한다"며 "강화된 안전 기준과 최상의 서비스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300여 대 규모로 확대될 기단 운영에 대비해 정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총 1760억원을 투입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활주로 바로 옆에 약 6만9300㎡ 규모의 신규 정비 격납고를 건설 중이다. 중대형 항공기 2대와 소형기 1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시설로, 중정비와 개조 작업을 집중 수행해 정비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도 강화한다. 엔진 테스트 셀(ETC)을 증설하고 엔진 정비 클러스터를 구축해 엔진 정비부터 최종 성능 시험까지 한곳에서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의 조종간을 책임지는 운항 부문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의 정기 훈련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등 기반을 다지고 있다. 양사는 동일한 교재와 교육 방식, 표준화된 모의비행장치(FFS)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통합 이후에도 일관된 운항 기준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객실승무원 안전 훈련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국토교통부 감독 아래 첫 통합 비상탈출 시범을 실시해 비상착륙·착수 절차와 구명정 운용, 공동 비상장비 사용 능력을 점검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을 계기로 시설 투자와 교육, 조직문화, 운영 정책 전반에서 안전 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고객 신뢰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최주선 "삼성SDI,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삼성SDI 사장〉

삼성SDI 창립 56주년 기념식
"세계 1등 기술력 회사 발돋움"

"지난 1년간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사진)은 1일 경기도 용인 기흥 본사에서 열린 창립 56주년 기념식에서 실적 반등과 인공지능(AI) 기반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최 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비관적 낙관주의'의 자세로 지난 1년간 묵묵히 내실을 다지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올 초 약속드린 대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각 사업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잇따른 ESS 프로젝트 수주와 글로벌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와의 공급 계약, 원통형 배터리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첨단 패키징 반도체 소재와 고화질·고효율 디스플레이 소재 등 고부가 신산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도 강조했다.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력도 주문했다. 최 사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런 성과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업무 혁신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사장은 "이미 AI는 우리의 일상 곳곳에 들어와 있다"며 "회사가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완벽하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에이전틱 AI가 일하는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변화의 파고에 과감히 올라타 다시 한번 세계 1등 기술력의 회사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창립기념식은 최주선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과 사업부별 우수 성과를 낸 'SDI인상' 수상자, 장기근속 수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원관희 기자 wkh@

스마트폰 제조사, 부품 비용 효율화 움직임

원가부담 커져… 카메라 전략 손질

삼성 삼성전기 등 공급망 다변화 나서
애플 렌즈시프트 OIS 기술 적용 검토

AI 메모리 수요 확대로 D램과 저장장치 가격이 오르면서 스마트폰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카메라 부품 전략을 손질하고 있다. 공급망 재편과 부품 설계 변경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AI폰 확산과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카메라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비용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주요 공급망 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망에는 삼성전기, 파워로직스, 중국 써니옵티컬 외에도 코아시아 계열이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아시아씨엠의 렌즈와 자회사 코아시아씨엠코리아의 카메라모듈이 함께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아시아씨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모듈을 모두 공급하는 기업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공급망 다변화가 생산 리스크를 분산하는 동시에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애플도 아이폰 후면 카메라 모듈에 렌즈시프트 방식의 광학식 손떨림방지(OIS)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렌즈시프트 방식은 카메라 모듈 내부 렌즈군을 사용자 손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켜 손떨림을 보정하는 기술이다. 반면 아이폰 정규 시리즈에 적용돼 온 센서시프트 방식은 이미지센서를 직접 이동시켜 손떨림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설계 난도와 제조원가는 높지만 보정 성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제조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애플이 비용 효율화를 위해 렌즈시프트 방식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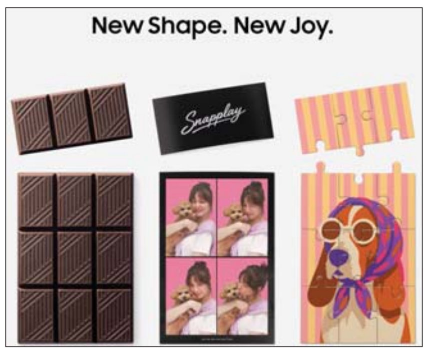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제조사들이 부품 원가 절감을 통해 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지만, 원가 부담이 지속될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카메라는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핵심 부품이라 성능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며 "결국 제조사들은 공급망 운영이나 부품 구조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원가 부담을 흡수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폴더블폰 '와이드형' 라인업 추가

8세대 폴더블 티저 영상 공개



삼성전자가 공개한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8' 시리즈 티저 이미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라인업을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한다. 기존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에 더해 가로로 넓게 펼쳐지는 '와이드형 폴드(가칭)'를 새롭게 추가한다.

1일 삼성전자는 글로벌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계정을 통해 8세대 폴더블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이 같은 라인업 확장 방향을 예고했다. 영상은 길쭉한 초콜릿을 부러뜨리거나 스티커 사진을 찢는 등 일상의 소재를 활용해 새로운 폴더블폰의 특정 비율과 형태가 드러나는 순간을 담았다.

새로 추가되는 '와이드형 폴드'는 여권을 펼치듯 가로로 넓게 펼쳐지는 형태로 더 넓은 화면과 몰입감 있는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폴더블 라인업은 갤럭시 Z 폴드와 갤럭시 Z 플립 2종 체제에서 와이드형 폴드가 더해진 3종 체제로 확대된다.

티저 영상에는 AI 활용이 일상 전반으로 확대되고 모바일 기기가 AI 경험의 핵심 진입점으로 자리잡는 변화에 맞춰 기존 폼팩터의 핵심 경험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선택지를 더해 경험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8세대 폴더블폰 신제품은 하반기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정식 공개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완성차업계, 할인·유류비 지원 등 프로모션 확대

개소세 감면 종료… 내수 위축 대응

국내 완성차 업계가 7월부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7월 한 달간 썸머페스타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쏘나타 ▲싼타페 ▲팰리세이드 ▲스타리아 4개 차종을 출고하는 고객에게 최대 40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네시스도 동일한 기간에 썸머 페스타를 실시한다. G80, GV70, GV80 3개 차종을 기본 100만원 할인하고, 차량 조건에 따라 최대 10%를 추가 할인한다. 이 외에도 2027 GV70 출시를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 'MY FIRST GENESIS'를 진행한다.

한국GM 쉐보레는 이번 달에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를 중심으로 유류비 지원, 저금리 할부, 개별소비세 지원금 등을 제공해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르노코리아는 '60일 반납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신차를 두 달 가까이 직접 운행해본 뒤 만족하지 못하면 차량을 반납하고 구매 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르노코리아는 SUV '그랑 콜레오스' 누적 판매 7만 대 돌파를 기념해 7~8월 한정으로 '만족의 확신, 반납의 자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인 고객이 그랑 콜레오스를 구매한 뒤 최소 30일부터 최대 60일 이내, 주행거리 3000㎞ 이하의 무사고 차량을 반납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법적 비용을 제외한 차량 구매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LG전자, '스탠바이미 2 맥스' 글로벌 출시

글로벌 이동식 스크린 시장 공략

LG전자가 이동식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2 맥스'를 북미·유럽·아시아 주요 시장에 순차 출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국내 출시 당시 흥행을 이어 더 커진 화면과 향상된 화질을 앞세워 이동식 스크린 시장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달 미국, 캐나다를 시작으로 8월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북미·유럽·아시아 주요 국가에 LG 스탠바이미 2 맥스를 순차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LG 스탠바이미 2 맥스는 지난 4월 국내에 먼저 출시돼 전작에 이은 인기몰이 중이다. LG전자 온라인 브랜드샵에서 진행된 출시 기념 라이브 방송에서는 준비한 초도 물량 200대가 45분 만에 완판됐으며, 방송 동시 접속자가 57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LG 스탠바이미 2 맥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더 큰 화면과 향상된 화질의 스탠바이미를 원하는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기 때문이다.

LG 스탠바이미 2 맥스는 기존 모델의 27형 대비 약 40% 커진 32형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또 4K UHD(3840×2160) 해상도를 지원해 더욱 선명하고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이동성과 사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됐다. 내장 배터리 용량은 144Wh로 늘어나 전원 연결 없이 최대 4시간 30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